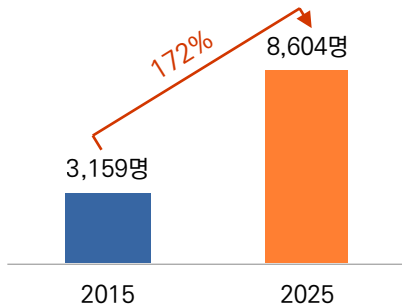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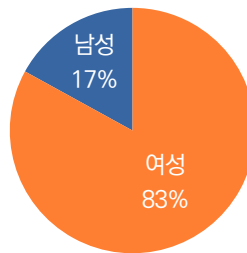
한국, 100세 이상 고령자 지난 10년사이 172% 증가

- 한국은 2024년 12월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%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. 노인 중에서도 말그대로 초고령인 ‘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’를 최근 국가데이터처(전 통계청)에서 발표했는데, 이중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.
-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3,159명에서 2025년 8,604명으로 10년간 172%로 크게 증가했다.
-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고령자가 83%로, 남성 고령자(17%)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.

[그림]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 수 추이



[그림]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 성별 분포 (2025)
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, 2026.08.20.

100세 이상 고령자, ‘경기 고양시’ 최대!

-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‘경기 고양시’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‘경기 용인시’(169명), ‘경기 수원시’(152명) 등의 순이었다. 절대 인구 최대 지역은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.
- 반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‘전남 고흥군’이 91.8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. 뒤이어 ‘경북 영양군’(89.6명), ‘경북 봉화군’(86.8명), ‘경남 하동군’(78.8명) 순으로 나타나 지방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.
- 고령자 절대 수는 인구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, 인구 대비 비중은 고령화율이 높은 군 지역이 상위 10위를 차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.

[표]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 (2025, 상위 10개, 명)

순 위	시도 및 시군구	인 구	순 위	시도 및 시군구	10만 명당
1	경기 고양시	188	1	전남 고흥군	91.8
2	경기 용인시	169	2	경북 영양군	89.6
3	경기 수원시	152	3	경북 봉화군	86.8
4	경기 남양주시	142	4	경남 하동군	78.8
5	제주 제주시	132	5	경남 산청군	77.7
6	경기 성남시	131	6	전남 함평군	77.0
7	경기 부천시	124	7	강원 화천군	75.5
8	충북 청주시	114	8	전남 곡성군	71.1
9	경기 안산시	100	9	충남 부여군	69.6
10	인천 서구*	96	10	경남 남해군	68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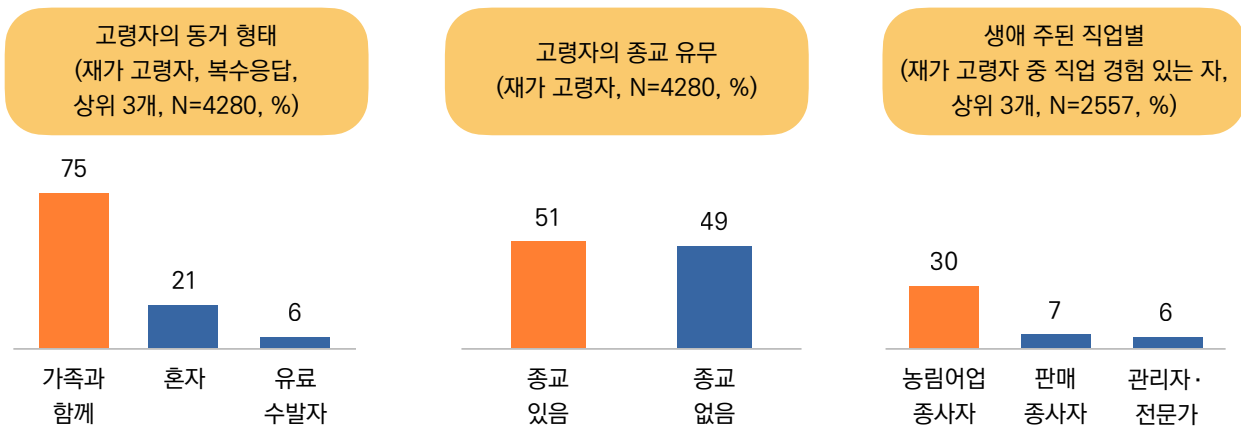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, 2026.08.20.

*인천 서구는 2026년 7월부터 서해구(변경), 검단구(추가 신설)로 변경됨

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 4명 중 3명(75%), ‘가족과 생활’!

-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, 동거 형태는 재가 고령자의 75%가 ‘가족과 함께’ 거주하고 있었으며, ‘혼자 사는 독거’ 비율은 21%였다.
- 종교 유무를 보면 ‘종교 있음’이 51%, ‘종교 없음’이 49%로 유종교자와 무종교자의 비중이 비등하게 나타났다.
- 직업 경험이 있는 고령자 기준, 생애 주된 직업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, ‘농림어업 종사자’가 30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 ‘판매 종사자’(7%), ‘관리자·전문가’(6%) 순이었다.

[그림] 100세 이상 고령자 특성 (20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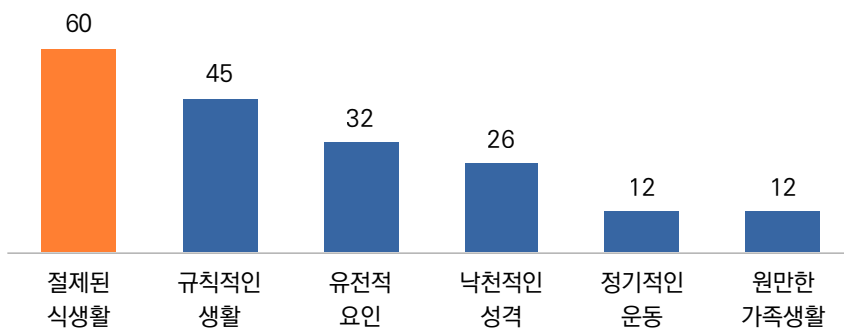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, 2026.08.20.

100세 이상 고령자가 꿈은 장수 비결 1위, ‘절제된 식생활’(60%)!

-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(복수응답)로 ‘절제된 식생활’(60%)이 가장 높게 꼽혔으며, 이어 ‘규칙적인 생활’(45%), ‘유전적 요인’(32%), ‘낙천적 성격’(26%)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10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 (2025, 재가 고령자, 복수응답, 상위 6개, N=4280, %)
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, 2026.08.20.